

【서평】

『교린제성(交隣提醒)』과 『통역수작(通譯酬酢)』
(田代和生 校注, 2014 : 田代和生 編著, 2017)

정 성 일*

1.

평자는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 명예교수이자 일본 학사원(學士院) 회원인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 교수가 최근 출간한 『교린제성(交隣提醒)』과 『통역수작(通譯酬酢)』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린제성』은 책 제목 그대로 ‘교린(交隣)의 참된 의미와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고자(提醒)’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가 작성하여 1728년 대마번(對馬藩)에 제출한 것이다. 『통역수작(通譯酬酢)』 역시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1755~1831)가 1831년 대마번에 제출한 것이다. 이 책 제목에서 말하는 ‘통’과 ‘역’은 각각 일본과 조선의 역관을 가리킨다. 대마도에서는 조선말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한 역관을 가리켜 조선어통사(朝鮮語通詞)라 불렀으며, 조선에서는 왜학(倭學) 즉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킨 역관을 왜학역관이라 불렀다. 그래서 오다 이쿠고로가 『통역수작』에서 말하는 ‘통’은 대마번의 조선어통사를 (대부분의 경우 오다 이쿠고로 자신을), 그리고 ‘역’은 조선의 왜학역관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조선어통사(通)와 왜학역관(譯)이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응대하듯이 묻고 답하는(酬酢) 형식을 취하면서, 오다 이쿠고

*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로가 조선과 일본[대마번]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책에 담은 것이다.

『교린제성』과 『통역수작』 모두 외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사료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교린제성』의 저자인 아메노모리 호슈는 두 차례에 걸친 나가사키[長崎 유학(1692~1693년, 1696~1698년) 외에도, 1703년부터 1705년까지 조선의 왜관(倭館)에 유학하여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그는 참판사(參判使)의 도선주(都船主) 자격으로(1702, 1713, 1720년), 재판(裁判)으로(1728년) 조선을 내왕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1711년과 1719년 통신사행 때는 대마번의 진문역(眞文役)을 맡아서 통신사 일행을 에도[江戶]까지 수행하기도 하였다.

『통역수작』의 저자인 오다 이쿠고로는 대마번의 무역상인(古六十人)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13살이던 1767년 조선으로 처음 건너온 뒤 여러 차례 조선 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나중에는 최고직인 대통사(大通詞)에 올랐다. 그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역수작』 외에도 『초량화집(草梁話集)』 등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저작물을 남겼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발견된다. 1755년 아메노모리 호슈가 사망한 해에 오다 이쿠고로가 태어났다. 이처럼 두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가 서로 달랐다. 1728년 완성된 『교린제성』이 17세기 말과 18세기 초반의 조·일 간 외교를 말한다고 한다면, 1831년 집필을 마친 『통역수작』은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반의 외교 상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오다 이쿠고로의 경우 장남 오다 간사쿠(小田管作)가 조선어통사가 되어 대를 이었으며, 훗날 『상서기문습유(象胥紀聞拾遺)』이라는 이름의 저술을 세상에 내놓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교린제성(交隣提醒) /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 校注,
東洋文庫 852, 일본 平凡社, 2014 / 426쪽 / 본체 3,200엔+세금 별도

교린제성은 총 5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을 분류해 보면 왜관(倭館)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통신사(通信使)와 관련된 것이다. 조선과 교섭할 때 기록의 중요성, 대마번의 조선어통사(朝鮮語通詞)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것도 기술되어 있다. 그 밖에 두 나라의 차이에 대해서도 썼다. 조선과 일본의 풍습 차이, 관(官)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인식 차이, 조선과 일본 되(升)의 용량 차이 등이 그것이다.

다시로 가즈이는 위 54개 항목에 대한 해독편(解讀編)－일본어로 요미구다시(讀み下し)라고 하여 ‘원문을 읽어 내린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현대 일본어로 번역한 것은 아님－에 이어서 해설편(解説編)을 작성하였다. 해독편은 원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더욱 흥미로운 곳은 해설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다시로 가즈이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부분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머리말

1. 조·일 간 교류의 시대 변화

- (1) 조선과 일본 사이의 힘의 변화
- (2) 울릉도 쟁계(竹島一件)로 본 대마번 외교의 불비(不備)
- (3) 기록의 충실과 활용
- (4) 역관 대책과 통사(通詞)

2. 통신사의 일본 방문 현장에서

- (1) 「삼사 사서(三使謝書)」의 위조와 국서 개찬(國書改竄)

(2) 약조 교섭

(3) 통신사 왕환(往還)

3. 왜관에서 일어난 일

(1) 도항선의 실태와 지급물 확보

(2) 왜관의 개시무역(開市貿易)

(3) 간품(封進·公貿易)과 조선 쌀의 수입

(4) 일상에서 일어나는 트러블

맺음말

조선후기 한일관계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그 시기의 통신사 문제라든가 일본어 통역 문제 등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정독(精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조·일 간 교류의 시대 변화」 중에서 평자의 눈에 띄는 점을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과 일본 외교의 시대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아메노모리 호슈는 울릉도 쟁계(1693~99년)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다. 울릉도 쟁계는 조선 숙종(肅宗) 연간에 있었던 안용복의 두 차례 일본 도항(渡航)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다. 다시로 가즈이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마번이 조선을 상대로 교섭을 하면서 약점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교린제성』을 읽다 보면 아메노모리 호슈가 그러한 입장이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로 가즈이는 대마번의 취약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① 왜관의 교섭 현장에서 대마도 본국의 강경론(영유권 문제)이 독단 진행(獨斷專行) 하였다는 점, ② 강경 노선에 반대하던 스야마 도쓰양(陶山訥庵)의 의견이 왜관과 막부 교섭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③ 막부의 통달(通達)과 회신을 둘러싸고 일본 측이 외교 면에서 균열을 만드는 바람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화 하였다는 점, ④ 대마번 측의 기록이 갖추어지지 못했음이 드러났다고 하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아메노모리 호슈가 조선과 교섭할 때 기록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배경 중 하나는 울릉도 쟁계의 결말이 일본 막부의 울릉도에 대한 조선 영유권 인정으로 맺어지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평자는 생각한다. ‘대마번이 좀 더 기록을 충실하게 남겨 놓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일본 측의 모습이 『교린제성』의 행간을 통해 전해져 온다. 아메노모리 호슈가 제38항에서 “1705년(숙종 31, 宝永 2) 이후 조선에 건너가는 사람은 각자 기록을 작성하여 번(藩)에 제출하도록 분부하였다.”고 적은 것도 울릉도 쟁계 후 대마번 차원의 정책적 대응 사례의 하나로 주목된다. 평자가 확인한 바로도 그러한 지시가 이때부터 내려졌으며, 그 뒤 왜관에서 여러 종류의 업무일지가 일기 형태로 작성되어 그것이 후임자에게 인계되기 시작했다. 대마번 행정 문서가 18세기 이후 많아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정성일, 「倭館 開市 때 제공된 日本料理 기록의 비교(1705년, 1864년)」 『한일관계사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2015 참조).

셋째, 기록의 충실만으로 외교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래서 대마도 본국에서는 조선 역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열중했다. 조선 정부가 동래부(東萊府)로 2년마다 파견하는 훈도(訓導) 1인과 1년마다 파견하는 별차(別差) 1인, 그 밖에 서기(書記), 수문지기, 왜관으로 물자를 반입하는 일과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소통사(小通事)까지 해서 30명 정도가 상주(常駐)하고 있었다. 통신사행(通信使行)이나 문위행(問慰行)이 예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다수의 역관이 파견되었음은 물론이다. 『교린제성』의 곳곳에서 아메노모리 호슈가 강조하였듯이, 이 사람들의 특성이나 그들의 역할과 활동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대마번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로 가즈이는 『교린제성』에 등장하는 8명의 조선 역관을 소개하고 있다.

아래 표로 정리한 ① 안신휘(安愼徽), ② 박유년(朴有年), ③ 박재흥(朴再興), ④ 박재창(朴再昌), ⑤ 한천석(韓天錫), ⑥ 한후원(韓後瑗), ⑦ 최상집(崔尙嶮), ⑧ 오만창(吳萬昌)이 그들이다.

연번	성명(姓名)	직위	자(字)	출생	수록
①	안신휘(安愼徽)	安同知	伯倫	1640	제37항
②	박유년(朴有年)	朴同知	子久	1641	제37항
③	박재흥(朴再興)	朴同知	仲起	1645	제20항
④	박재창(朴再昌)	朴僉知	道卿	1649	제13·35·36·37·44항
⑤	한천석(韓天錫)	韓同知	聖初	1653	제53항
⑥	한후원(韓後瑗)	韓僉知	伯玉	1659	제15·18·21항
⑦	최상집(崔尙嶮)	崔同知	延普	1664	제35항
⑧	오만창(吳萬昌)	吳判事	天老	1668	제3항

아메노모리 호슈는 이 가운데 ① 안신휘, ② 박유년, ④ 박재창을 대마번에 크게 도움을 준 3명의 조선 역관으로 꼽았다(譯中の三傑). 박유년은 일본인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지만, 박재창은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제37항).

III

통역수작(通譯酬酢¹⁾) /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 編著, 근세일조교류사료총서(近世日朝交流史料叢書) 1, 일본 ゆまに書房, 2017 / 556쪽 / 본체 5,800엔+세금 별도

1) 원문은 酢으로 되어 있으며, 이 글자는 저자인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가 만든 글자(造字)라고 한다. 원래 글자는 酢이다. 이 글자는 두 가지 음을 지녔다. 신맛 나는 조미료(식초)를 뜻할 때는 ‘초’로 읽고, 잔을 돌린다거나 응대한다는 뜻일 때는 ‘작’으로 읽는다. 이 책에서 수작(酬酢)은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이것은 수작(酬酌)과 한자가 조금 다르지만

『통역수작』은 3책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다 이쿠고로가 77세 때 친필로 쓴 원본의 소장처는 과천시 소재한 국사편찬위원회이다(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4313~4315).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제8권이 결본이다. 이 결본에 대해서는 다시로 가즈이가 쓰시마시에 보관되어 있는 『통역실론(通譯實論)』으로 보충하였다(長崎縣 對馬市 鍵屋歴史館 소장).

오다 이쿠고로는 『통역수작』을 대마번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통역실론』을 작성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역실론』도 3책 12권으로 되어 있었다. 다시로 가즈이는 오다 이쿠고로가 53세 되던 1807년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818년에 써 둔 『통역실론』을 다시 수정하여 1831년에 『통역수작』을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序書

- | | |
|----------------|----------------|
| 1. 풍의지부(風儀之部) | 2. 풍악지부(風樂之部) |
| 3. 선상지부(船上之部) | 4. 외국지부(外國之部) |
| 5. 건곤지부(乾坤之部) | 6. 부설지부(浮說之部) |
| 7. 무비지부(武備之部) | 8. 관품지부(官品之部) |
| 9. 여성지부(女性之部) | 10. 음식지부(飲食之部) |
| 11. 주례지부(酒禮之部) | 12. 예의지부(禮儀之部) |

위에 소개한 『통역수작』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오다 이쿠고로와 주고받은 이야기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원문 중 일부는 글씨 자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곳이 더러 있다. 뿐만 아니라 원본이 벌레가 먹었거나 파손되어 글씨를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곳이 여전히 군데군데 남아 있다. 그럼에도 다시로 가즈이는 이 책의 출간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글자 하나하나를 추적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로 가즈이는 『통역수작』을 세 편으로 구성하여 간행하였다. 각각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원문편(原文編; 翻刻)과 함께, 원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작성한 해독편(解讀編; 讀み下し文), 그리고 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핵심을 정리한 해설편(解説編)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해설편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다 이쿠고로와 그의 시대
 - (1) 고로쿠쥬닝[古六十人]과 오다케[小田家]
 - (2) 조선어통사로서의 오다 이쿠고로
 - (3) 난항을 거듭하는 역지빙례(易地聘禮) 교섭
2. 『통역수작』의 성립
 - (1) 「실론(實論)」에서 「수작(酬酢)」으로
 - (2) 『통역수작』의 개요
 - (3) 「수작(酬酢)」의 시기와 장소
3. 『통역수작』 속의 역관들
 - (1) 「역(譯)」의 성명
 - (2) 회화의 행방

평자도 과거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을 가지고 『통역수작』의 원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거나 부정확했던 것이 다시로 가즈이의 해설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더욱 명확해진 것도 있다. 다시로 가즈이의 『통역수작』 해설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역실론」에서 「통역수작」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한 부분이 새로웠다.

둘째, 오다 이쿠고로와 그의 장남 오다 간사쿠를 포함하는 오다 가문에 대한 서술이 돋보였다.

셋째, 『통역수작』에 등장하는 ‘역’ 즉 조선 역관의 실체를 명확히 한 것이 유익했다.

지면 관계 상 여기에서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통역수작』 속의 조선 역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다시로 가즈이에 따르면 『통역수작』 속에 11명의 조선 역관이 등장한다.

연번	성명(姓名)	자(字)	출생	일본 방문	수록	오다 이쿠고로 한글서한(書翰)
①	최봉령(崔鳳齡)	내의(來儀)	1722	1780 문위행	제8권	○
②	박도순(朴道洵)	여후(汝厚)	1722	1783 문위행	제8권	
③	현계근(玄啓根)	회백(晦伯)	1726	1780 문위행	제8권	
④	이명화(李命和)	성흠(聖欽)	1728	1762 문위행 1783 문위행	서, 제6·10권	○
⑤	박준한(朴俊漢)	사정(士正)	1730	1796 문위행	서, 제3·10권	○
⑥	김건서(金健瑞)	군강(君剛)	1743	없음	제8권	
⑦	정사옥(鄭思鈺)	사강(士剛)	1744	없음	제8권	
⑧	현식(玄燾)	양원(陽元)	1762	1811 통신사 1822 문위행	제8권	○
⑨	최국환(崔國桓)	무경(武卿)	1763	없음	제11권	
⑩	현의순(玄義洵)	경천(敬天)	1765	1809 문위행 1811 통신사	서, 제6·8·9권	○
⑪	최석(崔昔)	명원(明遠)	1768	1811 통신사 1829 문위행	제6·8·10권	○

위의 표로 정리한 11명 중에서 오다 이쿠고로가 가깝게 지낸 조선 역관은 4명이었다고 다시로 가즈이는 보았다. ④ 이명화(李命和), ⑤ 박준한(朴俊漢), ⑩ 현의순(玄義洵), ⑪ 최석(崔昔)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최석은 일본인 중 그 누구보다도 오다 이쿠고로가 믿었던 조선 역관이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통역수작』에서 오다 이쿠고로의 대화 상대로 등장하는 조선 역관은 바로 이 네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연령으로 볼 때 이명화와 박준한은 오다 이쿠고로가 젊었을 때 교류한 인

물로, 현의순과 최석은 오다 이쿠고로가 숙년기(熟年期)와 만년(晩年)에 걸쳐서 교류를 한 것으로 다시로 가즈이는 추정하고 있다. 왜관 밖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오다 이쿠고로가 조선 국내에서 중국 베이징(北京)에 이르는 지명(地名), 역명(驛名), 거리(距離), 일정(日程), 경관(景觀) 등을 개략적으로 적은 『북경노정기(北京路程記)』를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현의순 같은 조선 역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시로 가즈이는 보았다.

IV

평자는 최근의 『교린제성』과 『통역수작』 간행이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린제성』은 평자를 포함하여 몇몇 연구자들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적이 있다. 『역주 교린제성』(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국학자료원)이 그것인데, 이 책은 16년 전에 나온 것이어서 일부 오류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그것을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어 번역본인 『역주 교린제성』도 호슈카이(芳洲會)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는데, 원문 영인(影印)을 부록으로 제시한 것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역수작』에 대해서도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본은 물론 오다 이쿠고로라든가 그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근세일조교류사료총서 I로 간행된 『통역수작』에 이어서, II(1629년 일본 국왕사 상경 관련 자료), III(1872년 조선행일지), IV(왜관 무역, 조선어통사 관련 자료), V(철헌시집 贅言試集, 초량화집, 상서기문습유)까지 연속해서 출판된다면, 학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도 눈에 띈다. 아래에서 세 가지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평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 역관에 관한 정보의 문제이다. 다시로 가즈이가 펴낸 『교린제성』과 『통역수작』에는 조선 역관에 관한 정보가 꽤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유용하다. 다만 조선시대 왜학역관의 품계와 임용 등 정치사 내지 제도사 분야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조선 역관의 입장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남는 의문은 “과연 아메노모리 호슈나 오다 이쿠고로 같은 일본인의 상대편이 되어 교섭하면서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하였던 조선 역관의 논리나 판단 기준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하는 점이다. “아메노모리 호슈가 대마번 측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는 조선 역관 3인, 그리고 오다 이쿠고로와 관계가 깊었던 조선 역관 4인은 조선이라고 하는 자신의 나라에는 어떤 기여를 한 역관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런데 조선 역관이 남긴 기록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이 의문을 쉽게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비록 일본인 입장에서 쓴 『교린제성』과 『통역수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독(精讀)하다 보면 그 행간(行間)을 통해서 조선 역관의 논리나 입장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셋째, 관점과 인식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 두 자료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대마번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주장을 성급하게 절대화 한다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위험성을 높이게 될 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오다 이쿠고로가 사재(私財)를 들여서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를 펴낸 김건서(金健瑞)에 대하여 박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를 “탐욕스럽고 문제가 있는 인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김건서가 그러하였는지, 오다 이쿠고로가 그렇게 평가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치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 일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